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D-80

‘유관기관 협업, 성공 이끌 터’

전북도, 협업과제 보고회
식품위생·문화예술
안전 대책 등 집중 논의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1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실국 유관기관 협업과제 보고회를 가졌다.

이에 따르면 전북도는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후, 조직위를 구성하고 사업비 확보, 참가자 모집 등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대회개최에 필요한 협업과제로 8개 분야 55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운영지원, △안전 △경기가운영, △홍보·마케팅 △관광 △문화행사, △국제협력, △도민 참여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초청인사 의견·경호, 숙박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1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실국 유관기관 협업과제 보고회를 가졌다.

경기가장 안전 해외모집을 위한 다채널 홍보, 문화예술행사 집중 개최 안전대책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이번 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됐다"며 "특히 대회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와 유관기관이 조

조직위와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다중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폐회식엔 인파 안전관리,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직위는 참가자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참가자 등록이 집중되는 집 등을 고려해 신청기간을 3월 12일 까지 연장했다.

참가 희망자는 대회 공식홈페이지에 연계된 대회종합정보시스템(<https://aotapmg2023.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2023년 태권도 장애인국가대표 1차 합동훈련에 참여한 선수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태권도진흥재단 제공)

태권도로 장애 경계 허문다

강원 원주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절차 돌입
장애인 선수·지도자 등 일자리 창출 기여 기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이하 재단)이 지난해부터 역점 과제로 추진해오던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물꼬가 터지며 국기 태권도 활성화 및 장애인 선수·지도자 등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단은 지난해 2월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 창단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 장애인·비장애인 경기부 창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기부 창단 시기 대외효과와 재단의 지원 사항 등을 담은 자료를 제작해 전국 각지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가져왔고, 이번에 창단 발표를 한 원주시를 비롯해 다수의 지자체에서 경기부 창단에 관심을 표명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일, 강원도 원주시(시장 원강수)는 '내년 1월 창단을 목표로 장애인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절차'에

돌입한다며 앞으로 조례 개정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시의 발표와 함께 서울시 종로구(구청장 정문헌)에서도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등 재단은 그간 협력을 이어온 여러 지자체의 창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업무협약과 약정 태권도업 제3조에 의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오응환 이사장은 "장애인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은 국기 태권도 활성화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해 태권도와 체육을 통한 보편적 가치 실현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부 창단을 발표한 원주시에 감사함을 표하며 다른 지자체 등에서 태권도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주=전문선 기자

벚꽃과 함께 달려요...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4월 9일 개최

코로나19 이후로 3년 만에
풀코스 등 3개 종목 구성
내달 26일까지 인터넷 접수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대표 스포츠 행사인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9일 열린다.

군산시는 22일 국내 엘리트선수와 국내·외 마라톤동호인 군산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2023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4년만에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3개 종목(FULL, 10km, 5km)으로 구성됐으며 군산 일원에서 국내엘리트 풀코스 국내·외 마스터스 풀 10km 5km 8,000여명(참가자 5,000명, 근무자 및 기타 3,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비는 풀코스 5만원, 10km 3만원, 5km 1만5,000원으로 오는 3월 26일까지 인터넷(www.smgmarathon.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풀코스는 월명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대표 스포츠 행사인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9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19년에 열린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의 모습이다. (사진=군산시청 제공)

사정삼거리, 남북로사거리, 예술회관사거리 등을 거쳐 군장대학교 방면에서 1차 반환 후 원내포수문 2차 반환, 연안사거리, 군산시청 등을 거쳐 월명

종합운동장으로 돌아오면 된다. 10km 구간은 월명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진포초사거리 근처에서 1차 반환, 구보전소사거리 근처에서 2차 반환,

남북로사거리, 사정삼거리를 거쳐 월명종합운동장으로 돌아오면 된다.

5km 구간은 월명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칸타빌사거리, 미장삼거리, 미장교사거리에서 반환해, 월명종합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월명테니스장 앞에서 출발과 도착을 하고 행사부스를 경기장 안에서 운영해 혼잡성을 최소화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5km 10km 반환 코스구간을 변경했다.

또 현장보고회 및 코스점검, 근무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원활한 경기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4년만에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원활한 경기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참가자들이 군산에서 달려 건강한 행하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K리그1 전북현대, 트레이드로 정우재 영입

이주용, 제주FC로... 내년까지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이주용과의 트레이드로 제주 유니타드 정우재를 영입했다.

전북과 제주는 22일 정우재와 이주용의 트레이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4년 성남FC에서 프로로 데뷔한 정우재는 양 측면 수비가 모두 가능한 선수다. 2016시즌엔 대구FC의 K리그 승격을 도왔고, 2018시즌엔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에 일조했다.

2019시즌을 앞두고 제주에 입단한 정우재는 4시즌 동안 주축으로 활약하며 팀의 K리그 승격과 상위권 도약에 힘을 보탤다.

전북 유니폼을 입고 새 도전에 나선 정우재는 K리그 통산 228경기에서 12골 19도움을 기록 중이다.

K리그2(2부) 베스트11(2016년·2020년)에 두 차례 오른 경력도 있다.

정우재는 "우승하기 위해 전북에 입단했다"며 "전북 유니폼에 다시 K리그 황금 패치가 부착될 수 있도록 팀을 돕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에서 제주로 간 이주용은 2014년 프로로 데뷔해 K리그 통산 137경기에 출전 3골 10도움을 올렸다.

제주와 계약 기간은 내년까지다. 이주용은 "제주의 좋은 선수들과 시너지를 내겠다. 믿음과 신뢰를 주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

